

월·화 3사 新드라마 대결 “다음 열풍은 누구?”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지상파 3사 드라마들이 막을 내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드라마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월화 밤에는 (KBS·MBC·SBS 순으로) ‘쌈 마이웨이’와 ‘과수꾼’이 막을 내렸고 ‘열기적인 그녀’ 역시 이번주 종영을 맞이한다. 이들의 후속작으로는 17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할 ‘학교 2017’, ‘왕은 사랑을 한다’, 한주 늦은 24일 방송을 앞둔 ‘조작’ 등이 준비되어 있다.

수목 밤에는 ‘7일의 왕비’, ‘군주가의 연인’, ‘수상한 파트너’가 동시에 지난 13일 모두 종영했으며, 이후 ‘백룡이상한 나라의 펠’, ‘죽어야 사는 남자’, ‘다시 만난 세계’가 제각기 독특한 소재를 내세우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판이 시작된 3사 드라마들 중 과연 다음 승부에서 웃게 될 작품은 무엇일까. 월화, 수목별로 3사들의 전략과 후속작들을 살펴보고 라인업을 되짚어 보자.

▶ 월화 밤, 다시 시작된 드라마 전쟁... 전적은 어땠나

박서준-김지원-송하윤-안재홍의 ‘쌈 마이웨이’부터 이시영-김영광-김태훈-사이니 키-김슬기 주연의 ‘과수꾼’, 주원-요연서의 ‘열기적인 그녀’까지, 월화밤은 그야말로 젊은 인기 배우들의 대진이었다. 제각기 캐스팅부터 이미 주목받았던 작품들이다. 배우들 모두 연기력까지 출중

‘학교 2017’ · ‘왕은 사랑한다’ · ‘조작’ 등 화려한 라인업 · 독특한 소재 등 차별화

했으니, 어느 드라마를 선택해도 무리없는 몰입이 가능했다. 세 작품 역시 시청률은 다소 들쭉날쭉했지만 각각 고정 시청층을 사수에 성공하기도 했다.

젊은이들의 꿈과 현실 로맨스를 다룬 ‘쌈 마이웨이’는 현실적인 2030세대의 모습을 다루면서 후반부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다. 반면 ‘과수꾼’은 첫 화부터 무게감과 빠른 전개로 펼쳐지면서 정의를 사수하는 과수꾼들의 이야기를 그려며 눈길을 모았다. 사전제작되었던 ‘열기적인 그녀’는 캐스팅 단계에서 다소 난항을 겪었지만 무리없이 완성되었고, 기존 사극의 무게감을 탈피한 발랄한 분위기와 캐릭터를 뽐냈다.

‘쌈 마이웨이’의 경우,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멜로라인과 갈등 축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 ‘과수꾼’은 주인공 장도한(김영광)이 조수지(이시영)를 구하고 죽는 파격적인 새드엔딩으로 눈길을 모았다. ‘열기적인 그녀’의 경우, 이보다

종영이 한 주 늦은 만큼 쟁쟁한 월화 라인업으로 갈광질광 했던 시청자들이 막판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듯 개성 넘치는 드라마들로 인해 정작 시청자들은 즐겁고도 괴로운 고민에 휩싸여 했던 월화 밤이었다. 그리고 이런 대결은 다음 라인업인 ‘학교 2017’, ‘왕은 사랑한다’, ‘조작’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 새 드라마, 이번에도 ‘스쿨드라마, 팩션사극, 현대극’ 까지 뚜렷한 장르로 차별화

일단 양상은 이전과 비슷해 보인다. 한때 백과어, 타임슬립 등 겹치는 소재들이 즐비하게 대결을 펼쳤던 때도 있었지만 옛말이다. 이제는 제각각 호평을 받았던 간판 장르들이 출격하는 것.

‘학교’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왔던 KBS는 김세정, 김정현, 장동윤이라는 젊은 신인 배우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스타등용문’의 존재감을 드

러내겠다는 포부다. 여기에 탄탄한 종영 라인업과 한주완, 한신화 등 젊은 선생님 역할의 배우들 역시 로맨스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왕은 사랑한다’ 역시 동명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해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명품 제작진들이 재해석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화제를 모은 임시완, 임윤아, 홍종현 등 신인배우들의 삼각관계 로맨스는 벌써부터 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는 상황. ‘조작’ 역시 남궁민, 유준상, 엄지원, 문성근, 오정세 등 연기와 배우들이 캐스팅되었고, 부조리에 맞서는 기자들의 모습을 그려내며 인기작이었던 ‘피고인’을 잇는 속시원한 사이다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스쿨드라마 특유의 성장물과 발랄함을 내세운 ‘학교 2017’과 로맨스와 브로맨스를 오가는 세 남녀의 고려 로맨스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시대극 ‘왕은 사랑한다’, 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방송기의 비하인드와 광팬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조작’까지, 제각기 색깔이 뚜렷해 벌써부터 쉽게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음 3사 월화 드라마 역시 시청자들의 즐거운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인다.

‘무한도전’, 도미노 전우애+반전 눈물...최고 20.2% 돌파



군대에 간 ‘무한도전’ 멤버들이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고군분투한 가운데, 재미와 감동의 릴레이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진짜 사나이’ 특집은 제작진이 특별한 비강스를 보내준다는 멤버들을 ‘군대’에 입대 시킨 후 멤버들의 본격적인 군생활이 펼쳐졌다. 1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수도권 기준 15.9%의 높은 시청률로 변함없는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고 최고시청률은 무려 20.2%를 기록했다.

‘무한도전’은 지난주 방송분이 최고시청률 20.8%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방송까지 최고시청률이 2주 연속 20%를 돌파하며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맹주의 위엄을 과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공포의 화생방 훈련은 눈물과 콧물을 쏟았다. 멤버

들은 “지옥이다”, “지옥 가는 길”이라며 훈련 전부터 걱정했고 박명수는 역사나 처음부터 해냈다. 그는 교관의 설명을 숙지하지 못해 방독면을 쓰지 못해 ‘가스’를 외쳐 시선을 집중시켰다. 멤버들은 화생방실에 들어가 정화통 분리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화생방에서까지 FM대로 행동한 유재석은 누구보다 먼저 정화통을 분리했고 멤버들이 정화통을 분리하기 까지 기다려야만 했지만 끝까지 모든 상황을 이겨내 눈길을 끌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전우애가 돌보았다. 배정남은 고통스러워하는 하하의 정화통을 먼저 끼워줬다. 하하를 먼저 챙긴 배정남은 정작 자신의 정화통을 다시 채우지 못했다. 배정남의 선량한 인성이 눈길을 끌었다. 이 모습을 본 양세형이 도움을 주며 ‘도미노 전우애’가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으며 고

통을 분담했다. 유재석 정준하 하하 양세형 배정남 등 5명은 끝까지 버텼고 하하는 훈련 후 “사랑해, 진짜 사남해”를 외쳤다. 다른 멤버들을 살뜰히 챙겨 ‘훈련소 킥벨’이라는 별명을 얻은 양세형은 이날도 멤버들을 보살피느라 바빴다. 멤버들이 지리를 비운 사이 불건을 말끔하게 정돈했다.

화생방 훈련만 감동을 선물한 것은 아니었다. 재미를 위해 늘 티격태격 장난을 치는 아이였지만 군대에서 함께 밥을 흘리며 훈련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끈끈했다.

유독 입을 흘리는 정준하는 사격 훈련 중 교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탈진할 것 같으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은 우수한 성적을 받은 훈련병에게만 지급하는 사전 예고된 규율이 존재했으나 교관은 정준하의 부탁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는 멤버들을 그늘로 이동하게 한 후 정준하에게만 물을 지급했다.

정준하는 생수를 받은 후 박명수에게 권했다. 박명수는 정준하에게만 예외로 지급된 물이라는 이유로 마시지 않았다. 정준하는 교관에게 다시 “나 같이 먹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교관은 “탈진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정준하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대원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혼자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전우애를 보였다. 그는 “다른 동기들도 같으면 날텐데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물을 마시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하하 역시 점심 식사로 나온 유재석의 갈비탕에 뼈 밖에 없자 고기를 양보했다. 또 양세형은 요거트를 더 먹고 싶어하는 눈치인 정준하에게 자신의 요거트를 줬다. 정준하는 “살다 살다 그렇게 맛있는 요거트는 처음 먹었다 엄청 고맙다. 세형이한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세형이가 내게 돈을 엄청 준 느낌이다”라고 고마워 했다. 멤버들은 휴식 시간 안마를 해주면서 “모두 고생했다”, “사랑한다”라고 격려를 듬뿍 했다.

몽글한 순간은 계속됐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일반 훈련병의 사연을 들으며 아빠인 멤버들은 격하게 공감하며 먹먹해 했다. 멤버들의 눈물은 촉촉해졌다. 사연의 당사자도 눈물을 보였다. 하하의 어머니 ‘용드 옥정 여사’의 흥이 넘치는 음성 편지, 배정남과 영화 ‘보안관’을 함께 촬영한 배우 이성민의 따뜻한 응원도 공개됐다.

특히 양세형의 동생 양세찬이 읽는 어머니 편지도 감동을 안겼다. 양세형은 어머니가 신성한 ‘아빠의 청춘’을 들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 “아빠의 청춘이 아버지의 애창곡이었다.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부른 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양세형이 하하의 눈물을 흘리자 멤버들은 안타까워 했다.

무엇보다 이날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다. 정준하는 “아까 제작진 원망 많이 했는데 (전우애가 생겼다)라고 말했고, 하하 역시 “두 형들(박명수, 정준하)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애를 뽐냈다.

악동뮤지션, 새로운 장르 도전 예고



악동뮤지션이 오는 20일 새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6일 0시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이번 티저에는 어두운 밤 숲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장면과 어떤 두려운 존재로부터 쫓기듯 불안한 표정의 남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손전등으로 어두운 벽면에 새겨진 ‘WHO’S THERE’ 문구를 비추는 영상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악동뮤지션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가득한 티저를 연이어 공개, 이번 컴백에서 그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 변신이 기대

되는 부분이다. 특히 ‘WHO’S THERE’ 문구로 두려움의 존재가 언제, 어떻게 밝혀질지, 곡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두려움의 존재는 곡명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계속되고 있다.

악동뮤지션의 새 노래들은 어느 때처럼 이찬혁이 작사, 작곡을 맡은 작곡곡이 함께 전해졌다. 이찬혁은 소소한 일상의 소재도 참신하게 해석, 놀라운 발상과 재치를 보여 준 아티스트다. 이번 신보를 통해 이찬혁의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기량,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기발함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악동뮤지션의 새로운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악동뮤지션은 컴백 준비에 한창이며, 오는 22일 고양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일기장’ 공연을 마지막으로 4개월에 걸친 긴 장정의 투어를 마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음력 5월 24일)

- ▶ **황띠** 36년생 양보의 덕으로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4년생 꿈을 접지마라.
- ▶ **흰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띠**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흰띠**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황띠**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52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 ▶ **흰띠** 41년생 가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53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65년생 누적인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 **황띠** 42년생 욕심을 버려라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 **흰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 ▶ **황띠**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 **흰띠** 33년생 출입을 삼가라.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 **황띠**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망이를 쥐가 듣는다.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 **흰띠** 35년생 미련을 버려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기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